

UN, 北인권 결의 21년 연속 채택… 국제사회 “심각한 인권 침해” 재확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담은 유엔 결의안 전원 합의로 통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 발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담은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최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별도 표결 없이 전원 동의, 이른바 콘센서스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보고관 접근 거부 국제 규약 불이행 지적

유엔총회는 북한 당국이 여전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조사와 활동에 어떠한 실질적 협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요 국제 인권 규약과 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자국민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기소돼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특별보고관 접근 거부 국제 규약 불이행 지적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처음 유엔에서 채택된 이후 매년 통과돼 왔으며, 올해로 21번째를 맞았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으며,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도 참여를 유지했다.

◆인권위 “제국사회 공동 인식 반영” 평가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같은 날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 내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결의안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당국을 향해 북송된 탈북 임산부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군포로 송환 의무를 이행해 아직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와 남북자, 억류자를 즉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사망자의 경우 유해를 발굴해 송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제4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할 것과, 북한 주변국들이 인신 매매방지의정서를 준수해 탈북민 인신매매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해 북한 인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국사회, 인권 개선 촉구 지속

안 위원장은 향후에도 북한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에는 남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적인 송환과 사망자 유해 송환, 북송 탈북 임산부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중단, 인도적 지원 필요 파악을 위한 국제 인도기구의 접근 허용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한 당국이 주민 복지보다 군사비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4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은혜 기자

안양대학교 학생들, 이사회 회의장 기습 시위… “채플 선택화 중단하라”

안양대학교에서 채플 수업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사회 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학교의 기독교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며 학생 반발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최근 방학 중에도 약 20명의 학생들이 이사회가 진행되는 장소를 찾아가 “학교를 살려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는 신학 관련 전공뿐 아니라 사회융합부 등 비신학 계열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다. 학생들은 이사회의 출입 동선을 따라가며 “우리 이야기를 들어 달라”, “정체성을 버리지 말라”고 연이어 호소했다. 일부 이사는 호소문을 받아들고 격려를 전했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이들도 있었다. 시위는 돌발적으로 전개됐다. 학생들은



안양대 학생들이 시위하고 있다. ©뉴스에이 제공



이사회 일정에 맞춰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았다. 학교의 채플 선택화 시도가 반복된다 면 “문제는 한 학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의 기저에 기독교 정체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교양필수였던 ‘기독교 개론’의 선택화,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배정 논란, 기독교 교리 비하 발언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사건의 성격이 학사 운영 수준을 넘어 정체성의 문제로 전환됐다는 판단이다. 신과대학생회 심재민 회장은

참여했다는 점이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 며 “문제는 한 학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의 기저에 기독교 정체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교양필수였던 ‘기독교 개론’의 선택화,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배정 논란, 기독교 교리 비하 발언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사건의 성격이 학사 운영 수준을 넘어 정체성의 문제로 전환됐다는 판단이다. 신과대학생회 심재민 회장은

학생들은 앞으로도 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추후 추가적인 연대 활동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안양대학교와 유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예장 대신총회 측도 학생 지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은 내년 신년하례회에 학생들을 초청해 사안을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사회 회의 이후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채플 선택화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그리고 학생들의 움직임이 향후 학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형구 기자

영화 ‘부흥’, 2026년 1월 1일 개봉



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작품은 13시간 분량의 촬영본을 90분으로 압축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됐다. 현재 공개되는 1부는 ‘하나님의 캐스팅’을 주제로 한국교회의 역사적 부흥과 세계적 부흥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교회의 사명을 다뤘다. 이어 미국과 남미, 인도와 아시아 부흥을 담은 2·3부가 제작될 예정이며,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시장에 공개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김은호, 유기성, 류영모, 최병락 등 한국 목회자들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작품에 참여했다. 에즈베리대 케빈 브라운 총장, 빌리 그레厄 목사의 동역자 로버트 콜만 박사, 인도 사우스 쿠마르 목사 등 다양한 부흥 지도자들이 증언과 메시지를 전하며 작품의 무게감을 더했다.

〈부흥〉은 지난 12월부터 국내 주요 도시에서 시사회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 정식 개봉을 통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작품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계적 부흥의 한가운데 설 수 있다는 비전과 함께, “부흥은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예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